

컴퓨터는 바보

컴퓨터가 좋아서 이 分野에 從事하게 된 것도 아니고 好奇心으로 始作한 것이 어언 16년이 되었다.

컴퓨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머리의 回轉度도 NANO SECOND(10億分の 1秒)에서 PICO SECOND(1兆分の 1秒) 單位로 發展하고 있다. 더우기 最近에는 並列處理프로세서의 開發로 人工智能에 關한 研究가 한창이다.

그런데 왜 바보라고 命名했을까? 于先 컴퓨터는 거짓 말을 할 줄 모르는 바보다. 컴퓨터 俗談에 GARBAGE IN GARBAGE OUT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入力情報의 正確度에 對한 重要性을 強調한 말이다. 프로그래밍을 해 본 사람은 다 느끼는 바이지만 精誠을 疏忽히 하여 프로그램을 作成하면 컴퓨터는 반드시 그 代價를 要求, 最善을 다할 때까지 몇번이고 叱責을 한다. 차츰 驕慢한 생각은 사라지고 機械앞에 敬虔한 마음으로 審判을 기다리게 된다.

두번째로 컴퓨터는 忘却을 모르는 바보다. 人間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 곱은 일을 當하여 當時는 곧 죽을 것 같지만 時間이 흐름에 따라 造物主가 주신 忘却의 恩惠로 다시 蘇生하곤 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한번 記憶하면 잊어 버릴 줄을 모르는 것이다.



정희재

한일은행전산부 부부장

세번째로 컴퓨터는 食慾 좋은 돼지와 같다. 限 없는 食慾으로 모든 情報를 삼켜버린다. 近間에 供給되는 DASD (DIRECT ACCESS STORAGE DEVICE)는 台當 10 GIGA BYTE(100億文字收容能力)나 되니 可히 얼마나 큰 胃腸을 가졌는지 想像이 될 것이다.

끝으로 컴퓨터는 融通性이 없는 바보다. $1+1=2$ 이지 1이나 3이 될 수 없다. 하기가야 機械이니 當然한 일이라 하겠지만 우리는 老朽化된 機械에서 粗惡品을 얼마든지 만들어 내는 것을 보곤 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죽었으면 죽었지 粗惡品을 만들어 내지 못한다.

이런 바보가 生活하다 보니 내 自身도 漸漸 바보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그렇게 싫지 않으니 緣分은 緣分인가 보다.